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최수철



흔히 키스는 우리가 세상에 갖 태어나 업마의 젖을 빼는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키스는 붉은색을 탐치 하는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인류의 조상들에게서는 숲 속에서 빨강게 잘 익은 과일을 찾아내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는데, 붉은색에 대한 이러한 선호가 이성의 입술에 자연스레 이끌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키스는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셈이다.

인간이 계속 진화하면서 키스의 의미도 발전한다. 아기 때에 젖을 먹기 위해서는 고개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일찌감치 이 자세를 통해 행복과 은혜,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어 이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에 눈을 뜨게 되면, 유아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울이며 상대에게 다가간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 겹쳐진다. 인간관계에서 키스는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키스는 우리 몸에 강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정적인 키스를 하는 동안 혈관은 팽창하고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평소보다 더 많아진다. 호흡은 가빠지고, 붉은색이 달아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동공도 확장된다.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동공의 확장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더욱이 키스하는 동안 우리의 뇌, 얼굴 근육, 입술, 피부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신경 자극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하도록 촉진한다. 이른바 황홀한 키스는 자연적인 환각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기분을 들뜨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스를 두려워하는 키스 공포증(Philematophobia)도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키스를 하려 시도하면 완전히 공포

에 질리게 되는 증상인데, 주로 박테리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자신의 혀가 물러 뜯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키스할 때 278개 균락의 박테리아를 주고받지만, 이중 95%는 목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혀를 물릴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키스는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절실하고 현실적인 행위가기도 하다. 키스는 두 사람이 서로 기호, 취향, 접촉 같은 감각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다. 따라서 키스는 상대에 대한 모든 종류의 통찰을 잠재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여성에게 키스는 상대 남성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육체적으로 건 강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다. 말하자면 키스를 나누는 두 연인의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키스를 통해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자녀를 갖기에 적합한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단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두 연인은 키스를 통해 서로의 운명을 입으로 봉인한다. 드디어 결혼생활이 시작되는데, 세월이 흘러 서로에 대

한 새로움이 사라진 후에도 부부로 하여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애정에 계속 불을 지피게 해주는 것 역시 키스다. 키스는 포옹이나 예무와 더불어 우리 몸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키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키스를 통해 감각적으로 깨어나고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요즘 이른바 키스방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키스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친숙함이나 자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우려의 마음도 크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소 입안에서 혀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까? 혀끝을 말아 입천장에 닿게 해보자. 잠시 그리고 있으면 뇌파가 안정되고 기분이 달라지고 급방 입안에 단 침이 가득 고인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연인의 붉은 입술을 향해 다가가 보자. 천천히, 부드럽게!

〈소설가〉

## 키스의 미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로 칼럼



강채미

겨울 내내 집안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새봄, 새 학기는 아이들을 설레게 하지만 생활의 변화와 긴장 탓에 쉽게 피로해져 이 런저런 아픔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걸 보면서 부모는 무슨 큰 병이 아닐까 지레 겁먹지만 대부분은 단체생활중후군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자칫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단체생활중후군은 전체 초등학생의 30%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학기 중후군은 3~5세 때 처음 높아

## 신학기 중후군 극복하는 법

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단체생활 시작 후 감염성 질환을 반복해 겪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되는데, 아이의 체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해 짜증을 자주 내기도 한다.

집단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감염이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집단으로 감기가 전염되고 감기가 반복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병치레도 잦아 성장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면역체계를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를 만나면 콧물, 발열, 기침

등의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단체생활중후군이라 한다. 이것은 자기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아직 소화 기능이 불안정한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 때문에 면역체계에 이상이 온다든지 성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에는 건강한 식이요법을 통해 비위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단체생활 중후군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성장장애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 잘 크지 않아 성장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진단하고 치료해서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 주는 것이 좋다.

단체생활중후군을 이겨 내려면 우선 균형 있는 건강 식단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고 더불어 운동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운동은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환경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상기도질환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시키는 게 좋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공급이 필요하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해 마른 기침과 가래 끓는 것을 예방하고,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영양 공급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인다고 무작정 홍삼이나 건강 기능식품을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진찰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달나무한의원의원 원장〉

## 기고



이상식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만 성실하 받으면 특별히 사교육인 입시학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 시행하여야

## 운전면허 수강료, 부가세 과세 타당한다

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한 사교육인 입시학원 수강료도 조세저항 및 가계부담 증가를 우려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올 7월부터 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제도는 1995년 이전 정부에서 운영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의 극심한 적체를 해소하고 한국의 집중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교육단계부터 체계적인 운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도입된 제도이나 정부는 운전면허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과세 대책을 2010년 2월24일과 2011년 6월10일 두 차례 개정시행하며 기능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여 수강료 인

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운전기능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시킨 간소화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능교육시간이 35→25→8시간 이상으로 간소화시키려면 교통사고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 있어야 함에도 간소화 전과 후에 인공기능 차량이 보급되든지,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기능교육시간 대폭 축소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 기능시험도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교통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기능 교육시간 증가 등으로 운전학원

수강료가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의 80~90%가 고교졸업자와 대학 생활기간 중에 학생 신분으로 면허증을 취득한다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도 조세저항 및 가계 부담증가라는 명분으로 면세되는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기능교육을 시켜야 하는 운전기능 교육은 공교육이며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 만약 과세 된다면 18세 이상인 국민이 자동차운전 면허증 취득을 필수로 여기고 있으므로 친 서민 정책에 더 역행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방안인 버핏세의 도입 등은 여론 수렴을 통해 이사회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해법으로 재정수입을 늘릴지 궁금하다.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 전날 늦게까지 음주했다면 다음날 운전하지 마시다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나면 술이 깰 거라고 믿는다. 또한 전날 늦게까지 음주 후 다음날 차를 몰고 나가면서 음주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줄로 믿는다.

그러나 이전 너무나 큰 오산이다. 성인 남성의 간은 1시간에 소주 한잔 정도를 해독하기 때문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최소 8시간은 쉬어야 한다고 한다.

요즘엔 여성들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의 절반 정도가 적정량이다. 소주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세잔 정도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대개 0.05%를 넘지 않아 단속에는 걸리지 않는다. 때이ട 잔이든 음주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독능력이 떨어지고 한 병을 넘기면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여기다가 중간 중간 술자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도 있는 소위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1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이면 거하게 취하면서 동작이 커지고 말도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찾아온다.

마신 술은 곧 바로 뇌로 올라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렇게 술을 자주 빨리 마시면 뇌기능이 자주 파괴돼서 알코올성 치매처럼 뇌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그리고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나, 술에 관한 누군가의 잔소리에 짜증이 난 적이나, 음주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먹어본 적이 있을 경우 이 중 두 개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자신있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반면 식사를 한 사람은 술에 덜 취하고 깨는 속도도 빠르다. 술은 다른 음식과 달리 위에서부터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 음식이 있는 경우 술의 흡수속도를 늦추게 되기 때문이다.

즉 숙취 해소에는 콩나물이나 북어국이 효과적이고 사우나는 알코올 배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흡수가 가속화되는 만큼 음주 중 흡연은 좋지 않다.

운전을 하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한·미 FTA 발효 피해업종 대책 서둘러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15일 발효됐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직통 무역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과실을 키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 산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농축산 분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민과 전담농가 생산단가를 낮추고,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구력 마련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 발효로 전남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은 연평균 930억 원에 이르고, 15년 후면 소득 감소 규모가 1조408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축산 분야는 소득 감소가 가장 큰 15년간 피해액이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한우 생산비를

줄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94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15년간 총 2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FTA로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대책이 땀집식이라는 데 있다. 차체에 나눠주거식 정책에서 탈피,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뜨거운 감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관련 조항도 재협상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여부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를 글로벌 무역허브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피해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향후 보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준비 촉박한 여수박람회장에 불이라니

여수박람회장 국제관 C동 지붕에서 14일 낮 12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해 경찰 추산 2억5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만에 진화했다고 한다. 여수박람회 조직위 측은 "화재로 인해 지붕 500m와 국제관 벽 패널 20m가 훼손됐으며, 전시관 내부는 손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초기 진압에 나서 전시관까지의 확산을 막았더니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막을 불과 59일 앞둔 시점인데 화재가 발생한 C동을 복구하는 데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박람회장 각종 공사가 시일에 쫓겨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은 물론 안전사고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날 화재가 응집 작업 중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를 말해 준다.

박람회 시설 공사는 그동안 타워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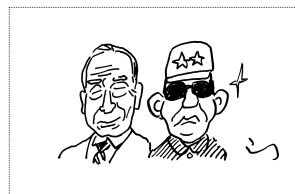
인의 장기 파업에다, 건설 장비업자들이 임대료 체불에 항의하며 장비를 철수하는 등 일부 공사마저 중단돼 전체적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람회 착공이 지연되면서 현재로서는 개막 전까지 모든 시설물이 제대로 완공될지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 출연금 중 이월된 건설사업비만 549억7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그 반증이다. 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판에 안전사고로 공사가 역주행한다면 개막행사 차질은 물론 나라 망신도 아닐 수 없다.

여수박람회 조직위측은 이번 행사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에서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 서둘러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날림과 부실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공정이 늘어지는 등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속도를 높이고, 안전진단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無等鼓

3·15와 10·26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자유 무역 거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을 떠나 역사적인 날이다. 1960년 3월 15일은 한국 정치사에서 의미있는 날로 기록됐다. 자유당 정권의 일명 '3·15'부정선거로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결국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역사속 3월 15일은 줄리어스 시저의 시해일로 가장 유명하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원로원 회의가 열리는 폼페이우스 회랑에 시저가 들어서자 마르쿠스 부르투스를 중심으로 한 원로원 의원 14명이 시저를 둘러싸고 미리 준비한 단검으로 난자했다.

절대 권력자 시저는 23군데나 찔린 현장에서 숨졌다. 시해자들은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수호자들 시저가 왕정으로 이행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부르투스는 시저가 가장 아끼던 애인의 아들로, 정적 폼페이우스파에 가담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죽을 위협에 처했지만 시저가 살려준 인물이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셰익스피어는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부르투스 너머저..."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 냈다.

옛 로마 달력에선 15일을 'Ides'라고 하는데 특별한 시저가 죽은 이날을 가리켜 'The Ides of March'라고 해서 불길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르투스 등 원로원파들은 시저를 살해하고도 공화정 복귀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로마의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미는 "부르투스는 '투비콘'(중대한 실행)을 건너가는 했지만 시저와는 달리 제자리 걸음을 해버렸다"고 평가했다. 철저한 준비없이 거사를 치른 탓에 여론도 얻지 못하고 14년 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등극도 막지 못했다.

3월 15일을 보면서 자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오버랩된다.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다"는 김재규도 결국 더 혹독한 전두환 정권 탄생의 밑거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이 무섭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b>光 卍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培榮</b> 편집국장 <b>曹庚亮</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